

竹川 朴光前의 人品과 性理思想

劉明鍾*

目 次

1. 머리말
2. 竹川의 人品
3. 性理說
4. 修養說
5. 政治思想
6. 맺음말

1. 머리말

竹川 文康公 朴光前(1526 中宗 21년 ~ 1597 宣祖 30년)은 全南 寶城 兆陽里에서 탄생하니 珍原 朴氏로 字를 顯哉라고 하였다.

尹鳳九는 선생의 墓表에서 “竹川 朴先生이 돌아가심에 문인 牛山 安邦俊이 公의 行장에서, 호남을 文獻鄉이라고 하는데, 학문으로 이름이 있는 분으로 金河西와 奇高峯, 李一齋, 柳眉巖과 우리선생(朴竹川)이 있다”고 했으며, 陶庵 李穡는 「墓碑銘并序」에서 安牛山邦俊이 논하기를 “선생은 실천에 독실했다”고 하였으며, ‘銘’에서 또 “퇴도 退溪의 학은 실로 주자에 근본 한다. 『주서절요』가 곧 그 근본이나 누가 받았는가, 퇴도께서 그대가 자기를 위하는 학이라”고 했으니, 공이 일어나 또 절하여 감당하였다.”고 했다. 이에서 竹川의 학문·학풍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작고

2. 竹川의 人品

선생 5세에 入學하나 9세에 조광조의 문인 忍齋 洪暹(1504-1585)에게 수업하였다. 1535년 때에 홍공이 金安老를 탄핵하다가 興陽에 귀양오니 五里를 추위나 더위 할 것 없이 도보로 왕래하여 일과를 게을리 하지 않고 수업하였다. 홍공이 그의 돈독한 의지를 칭찬하여 교훈에 더욱 노력했다. 12세부터 性理大全을 얻어 일과로 하며 13세부터는 스승의 도움 없이 능히 中庸을 읽고 얻는 것이 있었다.

19세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살고 있는 곳에서 북으로 二里 쯤에 정자천(亭子川)이 있는데 동서로 왕래하는 요긴한 나루이다. 나그네 중 그 물을 건너는 자가 흔히 갑자기 죽는 우환이 있었다. 죽천선생이 “어찌 물이 그렇게 하겠는가?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고 하여 장정 5·6인을 데리고 냇가로 가서 한 사람을 시험삼아 냇물을 건너게 하였더니 과연 넘어지고 기절하므로 끌어내 구출하고 소생케 했다. 몇몇 장정으로 하여금 나루 가운데를 파게 하니, 하나의 사람 두골이 나왔다. “이것은 반드시 원한의 소치일 것이다.”하고 조용한 곳에 묻어 주었다. 그 뒤는 영원히 이러한 근심은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선생의 명석한 자질과 孝友의 성심을 바탕으로 한 人品의 자기 형성과정을 살필 것이다.

(1) 竹川의 孝行과 交友

20세(인종 원년) 당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길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任百英과 함께 과거 가는 길에 올랐다. 길에서 朴祥의 문인 石川 林億齡(1496-1568)과 만났다. 石川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石川이 그의 타고난 성품이 특이한 것은 사랑할 만했으나 그 언행이 경솔한 것이 험으로 아까워했다. 그래서 石川이 충고하였다. “군자는 자기 몸단속 하기를 마땅히 重厚해야 한다”고 했다. 竹川이 이 말을 듣고 곧 북

중하여 늘 자기 생각을 극복하고 따로 수양하여 종신토록 약석으로 삼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진사합격 소식 전에 어머니 병환이 중하므로 몸소 탕약으로 주야 떠나지 아니하고 초상 제례에 家禮대로 시행하였으며, ‘선생의 학은 孝悌에 근본 했다.’(遺事) 하고, 또 ‘竹川の 부모 섬김에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孝를 이루었다.’(金三山文集)고 했다.

21세(明宗 원년) 장흥 문씨에게 장가들었다.

22세에 효자 松川 梁應鼎이 배우러 왔다.

25세 아들 根孝가 출생하고,

29세 東堂初試에 제일로 합격했다.

32세, 竹川 가에 정자를 짓고 爲己學에 노력하였다. ‘爲己學은 깊은 산속의 난초 향기와 같다.’고 퇴계는 칭송하였다.

33세에 문인 宣廷達이 楚辭를 배우고자 하였다.

34세 天鳳山 大原寺에서 강학했다. 강학하던 틈에 臺를 건축하고 못을 파서 수양할 곳으로 삼았는데 퇴계의 문인 宜峯 南彦紀(南彦經의 아우)로 하여금 遇溪 二大字를 써서 龜巖에 조각하도록 했다.

35세에 둘째 아들 根悌가 출생했다.

51세에 벼슬을 버린 것은 아버지 진사공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였다.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탕약으로 시종 했으며, 52세에 초상을 만나 43세 때의 어머니 최씨 부인의 병환에 탕약으로 밤낮을 떠나지 않고 하늘에 호읍(号泣)하고 통곡하여 기절한 것처럼 어머니상과 아버지상에 한결같으므로 진사 宣應直 등이 효와 상례, 몸가짐의 법도가 있음과 교육에 노력한 점으로 조정에 천거했다. 그 뒤 학생이 모여들므로 『小學』을 먼저 읽도록 하였다. 小學 존중은 許衡, 金宏弼 이래로 실천 도학의 神明과 같은 것이었다.

(2) 퇴계에게 집지(執贄) 하다

41세(丙寅, 1566) 겨울 퇴계 이선생의 문에 집지 하였다. 퇴계는 한번

보고는 깊이 권장하고 『주자서절요』를 초 하도록 하고는 “학문의 기초는 오로지 주자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수업을 허락하고 수업이 끝나는 무렵 부모봉양을 못한 지가 오래된 까닭으로 귀향할 것을 고하니, 퇴계는 『주자서절요』 한 볼을 선사하면서 “늦게 좋은 벗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대와 이별하니 어찌 말이 없겠는가?”하시고 시 5장을 지어주셨다.

丙寅 2月은 퇴계가 大提學이 되고 李恒, 成運, 韓修, 南彦經이 6품직에 임명되었다. 퇴계는 竹川에게 편지로,

자주 증단하는 十寒이라 한 말은 참으로 그럴싸 합니다. 대저 道란 너무 넓고 넓어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 지 알 수 없으니 저마다 성현의 가르침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하고 긴요함을 구하기는 朱子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 주자서. 宗신 사업으로 삼아서 도의 이치를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한 채 함부로 폐지하지 않는다면, 거의 인생 일대의 기쁨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늙고 그릇된 내가 헛된 이름에 사로잡혀 끝내 실제로 얻은 것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¹⁾

라 하였으니 퇴계의 朴先生에게 대한 교훈은 『朱子書節要』를 근본으로 하였다.

竹川은 그 교훈을 삼가 받고 『朱子書節要』의 연구에 노력하고 혹은 이해되지 않는 곳은 문목(問目)으로 질의하니 퇴계의 대답이 있었다. 퇴계의 교육은 순수한 주자학이다.

竹川은 퇴계에게 주자의 「袁機仲에게 대답한 편지」에서 ‘랑당(郎當)’과 ‘탁일하(卓一下)’에 대한 의미를 질의하자, 퇴계는 “郎當은 ‘狼籍’이고 ‘卓一下’는 ‘탁립하기가 한번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죽천이 關板의 뜻을 묻자, 퇴계가 板은 “대장장이가 바람을 일으키는 판목이다.” 하고 關板은 “요긴하다는 뜻일 것이다.”고 하였다.

1) 『退溪文集』 卷15, 「答朴上舍光前」, 丙寅

또 髑崙呑臯의 뜻에 대하여 퇴계는 “전부를 삼켜서 맛을 모른다는 뜻이다.”하며, “참으로 一捧一條하여 一攔一掌血로 흉(痕)이 난다.”는 뜻을 묻자 퇴계는 “봉(捧)은 ‘나무 작대기로 치는 것’이며 꺾(攔)은 ‘손으로 친다.’는 것이며 杖打는 ‘작대기를 침에 따라 한 가닥의 흉이 있다.’는 것이며 ‘손으로 치면 손에 따라 한번 손바닥에 피가 고인다.’는 것이니, 매우 아프기가 이와 같다는 말이라고 한 것이다.”고 해석했다.

(3) 학문방법

주자가 무인 劉季章에게 대답한 글 중 “이제 저 사람이 낮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는 밤에 대한 이치를 찾아 반박한다면, 각자 한 쪽만을 이야기하며 서로 꺾하니, 더욱이 논변이 끝날 때가 없습니다.”라고 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 조목은 퇴계가 栗谷說의 학문방법의 편중을 경계한 것인데, 죽천은 이것에 대해 질의하였다.

퇴계가 竹川에게 해석하기를

밤의 도리를 낮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는 말이다. 낮과 밤의 글자는 다만 한 번은 저요, 한 번은 이것으로 서로 반대되는 뜻이다. 逃閃은 閃逃이니 꾸미는 것이다. 어린이의 숨바꼭질처럼 한 편이 동쪽에서 찾으면 한 편은 서쪽에서 꾸민다. 이가 이 편에서 찾으면 저는 그 쪽으로 가서 꾸민다. 이것은 서로 달아난다는 뜻이고, 각기 한 편의 도리를 말한다. 이것은 서로 승리할 것을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知新중에 또 知行的 뜻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데, 퇴계는 “대저 知·行 둘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고, 새의 양 날개와

2) 『竹川集』卷3, 「上退溪先生問目」, 朱子書節要疑義; 今纔見彼說, 晝自家便尋 夜底道理反之, 各說一辺, 互相逃閃, 更無了期云云, 未知其意

같이 서로 선후가 되며, 서로 경중이 되는 까닭에 성현의 말씀에 “먼저 알고 뒤에 실행한다.”고 한 것이 있으니 『대학』과 『맹자』 따위가 이것이며, “먼저 실행하고 뒤에 인식한다.”는 것은 『중용』과 「晦叔에게 대답한 편지」 따위가 이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매우 많으니 다 예거할 수가 없다. 그러나 먼저 안다는 것이 다 알고 뒤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실행함은 다 실행한 뒤에 비로소 안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도와서 호진(互進)한다고 하여 퇴계는 知·行은 竝進하고 互進한다고 했다. 즉 王陽明의 知行合一說과 구별된다.

竹川이 “『태극도설』에서 “오직 사람만이 그 태극의 빼어남을 얻어서 가장 슬기롭다.”고 한 장에서 “동정, 음양이 마음이다.”고 주를 내었는데, “음양이 마음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고 질의했다. 퇴계는 “천지의 태극이 사람에게 있다면 곧 성(性)이요, 천지의 동정, 음양이 사람에게 있다면 곧 마음(心)이며, 천지의 金木水火土가 사람에게 있으면 곧 仁義禮智信이다. 천지가 만물을 조화하고 변화케 하니 사람에게 있어서는 곧 만사이다. 대개 일음, 일양의 유행조화는 곧 천지의 마음이 있는 까닭에 사람이 이를 얻어 생하고, 또 이로써 마음이 된다.”고 대답했으니 이는 음양유행, 조화는 천지의 정신(心)이라고 한 것이다.

竹川이 「주자가 장흠부(張欽夫)에게 대답한 편지」에서 “周子가 主靜을 설명함에 곧 中正仁義에서 말하여 正과 中을 대립시켰다. 中을 중히 하고 義를 仁에 배당하니 仁이 근본이다. 4자(四者)외에 따로 主靜 일단이 없다. 그들과 의정(義正)을 靜으로 삼고 主한다는 말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질문하니, 퇴계는 “일찍이 태극도설의 主靜장을 참고 하여 아래의 小註에 혹은 “仁을 用으로 하고 義를 體로 삼았는데, 만일 전체로 말하면 仁이 體이고 義가 用입니까?”하고 물었다. 주자가 말하였다. “仁은 體가 되고 義는 用이 된다. 대저 仁義에 또 각자 體用이 있다. 가령 측은이 動이며 仁은 곧 靜이다. 수오는 動이요 義는 靜인 것과 같다. 그 4자가 이미 각자 體用, 동정이 있으니 또한 서로 體用, 동정이 될 수 있음을 推知할 수 있다.”

가령 中, 仁의 靜으로 主를 삼으면 正, 義의 動으로 用을 삼을 수 있고, 正, 義의 靜으로 主를 삼는다면 中, 仁의 動을 用으로 삼으니 또한 가(可)하다.”

仁義中正이 動靜에 따라서 體用이 된다고 했다. 仁이 靜하니 體이고, 惻隱은 動이니 仁의 用이다. 이처럼 仁義에 각기 體用이 있으니 動靜으로 구별한다.

이 문답의 끝머리에서 艮齋 田愚가 「태극도설」의 小註와 ‘어루’ 賀孫 기록을 싣고 “천지의 태극은 삶에서 성(性)이고, 천지의 동정, 음양은 사람에서는 마음이 된다. 이는 ‘부수어도 파괴될 수 없는’ 말이다. 퇴도선생은 李龜巖, 朴竹川의 질문에 두 번 말했다. 선생(퇴계)의 정견을 알 수 있다.”고 긍정하니 그의 性體, 心用說과 부합한 까닭이다. 艮齋가 性體, 心用의 性學을 주장한 까닭이다.

43세(宣祖 원년) 진사 시험에서 竹川은 제 2로 합격했다. 중국 사신이 성균관 明倫堂에 앉아 여러 학생의 禮를 받았다. 퇴계도 竹川과 만나 竹川의 행동을 칭찬하였다.

(4) 벼슬길

45세에 眉巖 柳希春이 竹川을 조정에 천거하였으며 12월에 퇴계선생의 서거를 통곡했다.

46세에 慶基殿 參奉으로 제수 되었다. 경기 전은 전주부 후원에 있었다.

48세에 현능참봉이 되었다.

이 때 忍齋 洪暹이 다시 정승이 되니 참봉으로 찾았을 때 홍공이 손을 잡고 “어찌 만나러 오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竹川이 “정승을 찾는 것은 선비의 일이 아니다.”고 했지만 홍정승은 “선비가 정승집을 찾지 아니한다는 것이 어찌 나와 그대가 스승과 학생의 사이를 두고 한 말이겠는가?”라고 했다.

50세에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55세 가을에 동빙고 別坐로 제수 되나 받지 않고 돌아 왔으며 56세에 王子師傅가 되었다.

58세에 牛山 安邦俊(1573-1654)이 와서 수업했다. 그 해 여름에 감찰이 되고 겨울에 咸悅縣監이 되었다. 현감이 되자 視民如傷의 네 자를 벽에 써 붙여 백성을 괴롭게 하지 않았으며 수업하는 자가 수 십 인이 되었다. 겨울에 王子(光海君)가 편지와 함께 약물과 필묵 등을 보내왔다.

61세 봄에 왕자는 약물과 편지를 보내왔고 臨海君 또한 편지와 환약을 보내왔다.

62세에 掌苑이 되고 도중에서 또 회덕현감이 되었다.

현부에 이르니 어떤 宗親이 마을 사람과 노비에 대하여 송사하여 몇 해가 되어도 결판하지 못하고 11명의 현관을 거쳤으나, 또 전 회덕현감에게 이송되었다. 전 현감도 세력을 이기지 못해 판결이 지연되었다. 竹川이 그 문적을 열람하고 그 정상을 상고하여 마을 사람을 허락해 판결했다. 종친이 권세를 믿고 사현부에 상고했다. 사현부는 그 문안으로 보아 곡직이 뚜렷한지라 종친의 상고를 물리쳤다. 竹川의 성품이 유화하지만 시비의 판단에서는 매우 엄중하고 분명했다.

이 때 鄭汝立이 대동계(大同契)로 강상(綱常)을 비판하여 개혁으로 헛된 이름이 높았다. 한 때 선비들이 모두 모였다. 竹川은 그를 한 번 보고 그 행동을 살피고는 “이 사람과 두 번 만나지 말 것이다.”고 하였다. 그 뒤 과연 모역으로 죽임을 당하니 사람들이 그 선견에 탄복하였다.

64세에 재상어사 禹俊民의 미움을 당하자 벼슬을 그만 두고 돌아갔다.

(5) 壬辰, 丁酉의 義軍활동

67세(壬辰倭亂)에 왜란이 갑자기 일어나니 義軍을 모집하여 맞 싸우게 되었다. 이 때 평화가 오래라 백성이 전쟁을 알지 못했으므로 여러 고을이 광풍처럼 쓰러졌다. 얼마 되지 않아 왜적은 서울로 바로 침입하여 화를 헤아리지 못했다. 진보현감 任啓英(1528-1597), 능성현령 金益福, 蘭谷 鄭佶

등과 의논하였다. 竹川은 격문을 여러 고을에 보내 모병하여 정병 700여인을 얻었다. 竹川은 병으로 행동이 되지 않자 任啓英을 의장으로 삼고, 문인 安邦俊을 파견하여 군무를 體府使 鄭澈과 의논케 하고 문인 文緯世로 하여금 군수품을 주장하게 하며 鄭思悌를 종사로 하는 한편 큰 아들 朴根孝를 義軍參謀로 하였다. 금산·무주의 방어에 모두 공이 있었다.

68세에 翊衛司의 翊衛가 되었다.

선조가 서쪽으로 피신할 때 따르지 못하고 서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흐렸다. 왕이 서울로 돌아오에 상소하여 죄를 청하니 왕이 위로하고 익위 벼슬을 내렸다.

69세에 형제 세 사람이 동화로를 팔려고 왔다. 竹川이 “그 값이 얼마나?” 하니 세 사람이 꿇어 대답했다. “곡식 4·5말에 지나지 않습니다”고 하니 竹川이 “어찌 값이 적으냐?” 하니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우리가 먹지 못한지가 벌써 몇 날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구제하는 것이 위급한 까닭입니다.”

竹川이 그들의 굶주린 모양을 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쌍히 여기며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고 그 동화로의 값을 주었다. 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것으로 곡식 열 말을 얻어 몇 달을 연명할 수 있다.”고 하며 감사하였다. 이렇게 竹川의 仁德을 엿볼 수 있다.

70세(1595)에 다시 익위 벼슬이 내려졌다. 동궁 세자(光海君)는 그의 입성을 듣고 궁인으로 하여금 위로하기를 여러 번 하였다.

여름에 新昌縣監이 되나 나아가지 아니 하였는데 또 翊衛가 되었다. 그러나 늙고 병들어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동궁과 이별하는 정이가 간절했고 大學衍義와 小學을 하사하였다. 선생(竹川)은 “신이 늙고 죽을 것이나 원하건대 강학하고 덕을 닦아서 인격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다. 돌아가서 집을 청소하고 주역과 주자서를 읽고 조금도 그만두지 아니하였다.

72세(丁酉, 1597)에 왜적이 다시 침공하였다.

왜적이 전라도를 침공함으로 의병을 모집하였다.

竹川은 가족과 함께 서울에 가려고 했지만 南原이 이미 함락되어 길이 막혔다. 牛山 安邦俊과 함께 天鳳山으로 들어갔다. 왜적이 이미 서울을 침략하였으므로 왕이 계신 곳을 알지 못하니 인심이 흉흉하고 왜적에 붙는 자가 있고 왜적을 인도하여 백성을 도륙한 자가 있었다. 사람의 생사가 조석에 달렸다.

생원 朴士吉이 숲 속에서 나와 말하였다. “국가의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신하 된 자가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소. 당연 義軍을 일으켜서 국가의 일에 죽는 것이 옳소이다.”

대중이 말했다.

“선생(竹川)과 장자가 사람들의 믿음을 받았음이 오래입니다. 원하건대 義將이 되어 대중의 마음에 응하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선생(竹川)이 “난리가 날로 급박하고 내 병이 날로 중하니 장차 죽을 것이다. 그러나 숨이 붙어 있는 한 왜적과 함께 같이 살지는 않을 것을 맹서한다.”고 하고 드디어 의병과 군량을 모집하였다.

10월에 淑夫人 文氏가 母后山에서 죽었다.

충성과 분통이 격렬하여 사생을 생각하지 않고 朴士吉과 同福에 들어가 副將으로 前判官 宋弘烈을 삼아 용사들을 거느리고 왜적 소굴을 직결 하니 혹은 놀라고 혹은 절멸하였다. 군사의 기운이 점점 일어났다. 수령 중에 산이나 바다로 숨은 자가 그 성공을 투기하여 마침내 꺾으려고 했다. 그러나 왜군은 퇴각하기 시작했다.

의군활동 중 竹川이 72세(1597)되던 해 11월 18일에 세상을 떠나 보성 沙谷에 장사되었고 그 뒤 龍山書院이 건립되며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曁 經筵參贊官이 증직되며 文康의 시호가 내려졌다. 퇴계의 문하에서 朴竹川은 문인 安邦俊, 文緯世와 아들 根孝와 함께 壬辰, 丁酉倭亂 극복에 의군으로 활동했고 柳成龍, 金誠一, 金晬, 鄭崑壽는 국난 극복에 노력했으며 의군으로 전사한 金沔, 宋言慎 등이 국난 극복에 성심을 다했다. 선생의 人品은 道學과 義理의 영원한 師表라고 하겠다.

3. 성리설(性理說)

安邦俊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竹川先生은 퇴도의 嫡傳으로 전통을 계승하여 학문의 깊이, 천박, 體用的 정미를 후세 소자가 감히 엿볼 바가 아니며 그 덕행과 교화의 공의 대강과 법칙은 이 세상에 밝아서 사람의 귀,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대개 선생(竹川)의 학문은 한결같이 스승의 본뜻을 따르고 낙수[程子]와 민강[朱子]의 정맥에 소급하여 주자서에서 연구가 가장 깊었으니 퇴도가 준 『주자서절요』 8책이 학문의 관건이요, 자기를 위한 요령이 되었으니 의심한 자의 질의를 하나로 묶어 후학에게 은혜로 남겨 程朱의 도를 다시 세상에 밝혔다. 선유가 논한 理氣先後와 四端七情說을 절충하여 분석하였다. 고금의 典禮 또한 고증하여 세상 사람에게 교화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바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니, 어찌 선생의 성덕대업이 우리 학도에게 공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竹川文集』卷8, 建院通文. 安文康公)

요컨대 퇴계의 『주자서절요』 8책으로 위기학(爲己學)에 노력하여 程朱의 진리를 다시 밝히며 理氣先後와 四端七情說을 절충했다.

선생은 겸손하고 공손하여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한 걸로 자기를 위하는 학문을 하고 남이 알아주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竹川集』卷7. 遺事)

배우려 오는 자가 있으면 선생은 의관을 바꾸고 가르치기를 ‘사람의 학문은 기억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을 위하는 도리에 있다. 만약 학문하고자 한다면 어찌 爲己의 본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겠는가?(年譜. 壬戌, 37세)

퇴계의 「주서절요서후지(朱書節要序後識)」에서 竹川은

丙寅年 겨울 퇴계선생에게 집지 하였더니, 선생께서 “공자 이래로 앞 성인이發明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것에 주자께서 그 근본을 얻는 것이 있었다.”고 하였다. 뒷날의 한없는 것을 기대하여 노력해 마지 아니하여 8책의 절요

를 내리면서 경계하길 간절했다. 대개 선생의 깊은 뜻은 편술로 자처하지 아니하고, 본뜻을 강하여 밝혀 노력하는 과정을 책임 지었으며 함께 序하니 공손히 받아 의심되는 것은 질문하여 선생님의 해석을 얻어 정밀한 뜻을 궁구하고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만두지 아니했던 까닭이다. 훈육을 친히 하셔서 깊이 성찰하여 제발한 바를 알게 하시었다. 이에 글을 써서 선생님이 저를 교육하신 뜻에 가깝도록 할 생각일 뿐이다.(嘉靖丁卯二月日 門人 朴光前謹識)

이라고 했다. 이렇게 竹川의 학문의 기본이 『朱子書節要』에 있었던 것을 밝혀준다.

선생(竹川)의 학은 이것을 밖에서 찾지 않고 孝悌에 근본 했고, 삼가 조심하며 공손으로 실행하였다. 그 얼굴에 나타남은 일단의 화기이다. 더욱 性理學에 깊고, 自得이 있으나 사람이 능히 엿보지 못하였다.³⁾

성리학자로서 孝悌, 謹慎하며 和氣한 기상과 학문에 自得이 있었고, 온공한 竹川의 학자풍을 알게 한다. 성리학에 自得이 깊숙하여 그 경계를 남이 엿보지 못한다고 했다.

楓庵 文緯世가

1564년(甲子) 봄에 자형 朴竹川光前(字 顯哉)을 따라서 퇴계선생을 도산서당에서 배알했다. 다음 해(1565) 여름에 尹剛中·欽中을 이끌고 함께 도산선생에게 수학하니 선생은 心經註 가운데 의심스러운 곳을 가르치시니 도산선생께서 손수 한 자신의 주에 따라서 가르쳐 주시었다.⁴⁾

라고 기록하였으니 文緯世를 지도한 것은 朴光前이다. 朴光前과 文緯世, 尹剛中, 尹欽中이 다같이 퇴계의 문인이 된 사정을 알게 한다. 朴光前이

3) 『竹川集』卷7, 「遺事」; 先生之學, 不求諸外, 而本於孝悌, 行之以謹慎恭遜, 其見於容, 則一團和氣耳. 尤達於性理之學, 有所自得而人莫能窺其際

4) 『楓庵錄』, 「陶山先生言行通錄」; 嘉靖甲子春, 從姊兄朴竹川光前字顯哉, 謁先生于陶山. 乙丑夏, 携內弟尹剛中欽中, 同往受學於陶山, 先生授以心經註中疑難處, 先生自旁註以教

文緯世를 도산으로 인도한 甲子(1564)는 퇴계선생 64세 4월로 그 때 학생과 청량산에서 놀았으니 그들도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師弟가 함께 心經을 통하여 居敬공부에 전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 天卽理

“健順 五常의 理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부여되어 있다.”고 했다.

하늘은 健順 五常의 理를 사람에게 부여하니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 한가지요, 부자나 가난한 자도 평등하다. 오직 聖人은 능히 그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유행하는 理는 天理 아닌 것이 없으며, 일반 사람은 그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까닭에 귀머거리로 자처한다.⁵⁾

健順, 五常의 天理가 인간에게 함께 구비되었으나 聖人은 天心을 듣게 되나 일반 사람은 天心을 듣지 못하는 구별이 있다.

聖人의 마음에 구비된 理가 天의 明命이 아닌 것이 없으니 어찌 함께 말하지 아니할까? 대개 天이 理로 위에 말없이 운행하고 聖人 또한 이 理와 대응한다. 아래에서 형체를 말하면, 비록 上下로 아득하여 서로 접촉할 근거가 없다해도 理로 말하면 上下가 一體요, 彼此에 틈이 없다. 비록 소리도 냄새의 자취도 없다할 수 있더라도 그 말 없이 아득한 가운데서 서로 깨우치는 것을 도리어 감히 귀에 대고 얼굴에 맞이하는 묘가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하늘과 성인의 관계가 비록 말로써 말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어찌 말할 이치가 없겠는가?⁶⁾

5) 『竹川集』卷4, 「帝謂文王論」; 天以健順五常之理 賦之於人, 智愚一焉. 豐富均焉, 惟聖人能以其心 聽天之心, 故其日用流行之理, 無非天也, 衆人不能以其心 聽天之心. 故自分於龔贖也

6) 『竹川集』卷4, 「帝謂文王論」; 聖人方寸中所具之理, 無非天之明命, 則爲得不與之言乎. 蓋天以理默運於上, 而聖人亦以是理 對越 於下 以形而言之, 則雖有上下之邈然不相接 據理而言之, 則上下一體也, 彼此無間也, 雖無聲臭之可述 而其所以默然相喻於

하늘 위의 天理와 人心의 理는 틈이 없이 上下가 一體이다. 그래서 “천(天)과 성(聖)은 하나이다.”라고 하고, “하늘엔 元亨利貞의 덕이 있고, 聖人에게는 仁義禮智의 性이 있다. 하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운행이 있고, 聖人에게는 喜, 怒, 哀, 樂의 用이 있다.”고 하였으며, “天和 聖人 이 과연 실향만한 틈이 있으며, 한 숨도 서로 떨어짐이 있겠으며, 어느 곳도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고, 어느 때도 그러하지 아니한다.”⁷⁾ ‘天和 聖人은 일치한다.’는 것이다.

(2) 心學

문왕은 ‘心和 理를 만나게 하고, 事와 道로 하여금 함께 하게 했으니,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帝則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늘과 文王의 관계를 말하는 까닭이다.⁸⁾

天和 聖, 理와 心, 事와 道의 일치는 程朱心學의 근본이다. 精一擇守하고 一守하는 공부가 곧 ‘心與理會’하는 心學이라고 했으니 陸王의 心即理의 心學과는 구별된다. 程朱는 心與理를 본질로 하지만 陸王은 心即理를 본질로 하는 心學이다.

인군이 되어서는 仁에 머물고, 아들이 되어서는 孝에 머물고, 신하가 되어서는 敬에 머물고, 국민과 사림에는 信에 머문 것이 문왕이 天命에 대응하는 것이 그러한 까닭이다.⁹⁾

擇精, 守一의 구체적 공부를 말하면 仁, 孝, 敬, 信 등의 실천이며 天命에 대응하는 까닭이라고 했다. 또

冥冥之中者, 反有深於耳提而面命之妙矣. 然則天之於聖人, 雖不語之以言 而豈不語之以理哉

7) 同上; 天與聖人, 其果有絲毫之有間乎, 其果有瞬息之相離乎, 無處不然, 無時不然

8) 同上; 使文王心與理會, 事與道俱不識不知, 順帝之則者, 天之所以語文王者然也.

9) 同上; 爲人君止於仁, 爲人子止於孝, 爲人臣止於敬, 與國人交止於信者, 文王之所以對天命者然也

“문왕이 하늘을 섬김은 오직 하나의 敬일 뿐이다.”(同上)
 라고 하였으니 仁, 孝, 敬, 信 등을 실천하는 근본이 敬으로 통일되었다. 仁, 孝, 敬, 信에 머무는(止) 공부가 敬공부라는 것이니, 止仁, 止孝, 止敬, 止信 하는 마음공부가 敬이다. 퇴계는 心經에서 더욱 心學에 주목하고 居敬으로 마음 수양 공부로 통일하니 竹川의 心學 역시 퇴계의 心學을 계승하였다.

4. 修養說

성리학에서 인간수양은 窮理하는 天理와 居敬하는 心의 두 기둥이 있었다. 竹川의 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내 마음을 方寸에서 찾으면 만물이 우거지게 모두 갖추었으니 참으로 있는 것은 이치(理) 아닌 것이 없다. 마치 땅 속에 있는 물과 같이 그러하다. 기쁨이 한결갈지 아니하나 어찌 사람마다 타고 날 때 얹어 성인 되는 방법을 알까! 성인이 되는 방법은 마땅히 사색을 완성하는 것(致思)보다 요긴 한 것이 없다. 이에서 군자의 학문은 처음엔 반드시 사물마다 나아가 궁격(窮格)하여 연구가 반드시 지극함에 이르기를 기약한다. ……; 대개 성인을 배우는 공부 과정은 반드시 사색이 요구되고, 사색은 반드시 오래도록 하는 것이 귀중하다.¹⁰⁾

또, “사색은 반드시 오래 한 뒤에 통달되니, 샘을 파는 비유에 의뢰한다.”고 하여 卽物窮格은 致思에 있고 致思는 샘을 파듯 오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卽物窮格은 程朱學 인식의 정법이다.

‘卽物窮格’ 즉 ‘窮理’는 사색이 근본이라는 것이다. 객관적인 理가 내 마음의 사고방식에 반영되어야 합리적인 사고가 보장된다. 합리적 사고에 의하여 자기의 心身을 격률(格律)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수양방법이고, 내

10) 『竹川集』 卷1, 「致思如掘井賦」; 原吾心之方寸, 藹萬物之皆備, 信無在而非理, 猶地中之有水 然氣稟之不一, 豈人人而生知, 知作聖之有道, 宜莫要於致思, 茲君子之學, 初必從事乎窮格 卽物物而是究 期必到乎至極, ……; 蓋學聖之工程, 學必要乎有思, 思必貴乎攸久.

면적인 마음공부는 ‘主敬’에 있다. 窮理라는 外的 수양과 主敬이라는 內的 수양공부가 서로 성숙해서 비로소 內外一致의 수양 공부가 성취된다.

持敬에 종사해서 노력한다면, 本末의 남김이 없게 되고 엄정히 上帝에 대하여 스스로 본심을 지켜서 옮겨지지 아니한다. 그 어찌 많이 존재하는가?

혹은 正理를 혼란케 하여 사욕에 따르니 이미 면대해 보았으니 하물며 홀로 어두운 밤에서 감히 말하노니, “옛 철인이 힘써 노력하여 성인지경에 깨쳐 들어간 것을 우러르며 스스로 만족한다.”¹¹⁾

‘持敬’은 ‘慎獨’공부에서 출발한다. 결국 사욕을 버리고 ‘正理’를 自守하는데 있다. ‘持敬’과 ‘正理’는 서로 보충하고 서로 녹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 홀로 조심하는 ‘慎獨’이 ‘持敬’으로 나가는 기초이다.

이불아! 이불아! 나는 너를 엄정한 스승으로 여긴다. 엄정하지 아니하나 엄정하다. 나의 心思를 바로 잡을 지라! 이불아! 이불아! 나는 너를 존경하는 벗으로 삼는다. 두렵지 아니하나 두렵다. 마음을 성찰하여 병 되지 되지 않고, 마음에서 부끄럼이 없으면 너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천지도 부끄러워 할 것이 없다.¹²⁾

이불 속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慎獨은 천지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기르는 방법이다. 그 持敬을 自修하는 要法이다.

하늘의 덕이 날로 높아짐에 그 공부는 主敬에 말미암는다.¹³⁾

라고 하여 天德의 진보는 主敬공부에 있다고 단정했다. 主敬공부를 통해서 자기에게 內在해 있는 선천적인 도덕 원리를 발전시키는 수양이 진행

11) 『竹川集』 卷1, 「獨寢不愧衾賦」; 屛從事於持敬, 庶本末之不遺, 儼對越乎上帝, 確自守而不移, 夫何衆兆之或 或汨正理而循私, 旣面目之有覩, 況獨夜之敢論, 仰前哲之拳拳, 悟入聖之有門 自慊

12) 同上; 衾兮衾兮, 我以爾爲嚴師, 不嚴而嚴, 正我心思, 衾兮衾兮, 我以爾爲畏友, 不畏而畏, 內省不疚, 不愧于心, 不愧于爾, 不愧于爾, 不愧天地

13) 『竹川集』 卷1, 「正心賦」; 天德之日崇, 由厥功之主敬

된다는 것이다.

5. 政治思想

竹川의 정치사상은 군주로서의 마음가짐과 국가방어에 관한 방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德政說

하늘에 仁愛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군에게 덕을 권장하는 까닭이 없고 하늘에 재앙과 어지러움의 발동이 없다면 인애의 마음이 드러날 까닭이 없다. 재앙과 어지러움의 발동으로써 상(象)을 드리워 인애의 발현을 상량하게 하니, 즉 조심하고 몸을 닦고 반성하게 하는 것은 仁愛하는 마음이며 재앙을 상서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인애하는 마음이다. 하늘과 인군의 관계는 또한 그 지극하다.¹⁴⁾

인군은 하늘을 대신하여 인애하는 마음을 내리는 자이다. 그래서 재앙도 상서로 바꿀 수 있다.

황천의 은혜로운 명령은 오직 정성에 있다.上天이 임군과 스승을 만든 까닭은 천명을 받들고 때로 보존하는 것이요, 인군이 하늘의 영을 대신하는 까닭에 군주와 스승을 만들었으니 하늘과 군주의 관계는 반드시 인애하는 마음에 있었고, 하늘의 일을 대신하니 군주와 하늘의 관계에서 반드시 인애하는 보답이 나타나는 것이다. 홀륭히 공경하고 오직 친할 것이라. 하늘이 어찌 차마 위험을 공경하는 자에게 표시하며 조심하는 군주에게 내리겠는가?¹⁵⁾

14) 『竹川集』 卷4, 「天心仁愛人君論」; 天無仁愛之心, 則無以勸人君之德, 天無災沴之發, 則無以著仁愛之心, 以災沴之發垂象 而究仁愛之發見, 則使之警懼修省者, 仁愛之心也, 使之轉災爲祥者, 仁愛之心也, 天之於人君 亦其至矣

15) 同上; 皇天眷命, 惟簡在, 上天所以作君師也, 奉若天命, 于時保之, 君之所以代天工也, 作之君師 則天之於君, 必有仁愛之心, 代其天工 則君之於天, 必見仁愛之報, 克

군주는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仁으로 사랑해야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 의의를 망각할 때 재앙과 혼란이 내려진다.

인군의 덕은 하늘과 그 體를 같이 하며, 인군의 정사는 하늘과 그 用을 같이 하니, 하늘은 인군이요, 인군은 하늘이다. 상하가 일치하고 현미(顯微)에 틈이 없다.……, 그러나 인군의 덕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늘과 그 體가 같을 수 없고, 인군의 정사에 잘못이 있어 하늘과 그 用이 같을 수 없다면 하늘은 하늘이요, 인군은 인군이니 天用을 믿기가 어려운 까닭이다.¹⁶⁾

인군의 德政이 하늘과 같이 體用을 함께 할 때 君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君으로 體用이 일치하고 顯微에 틈이 없다. 그러나 인군의 德政에 흠이 있다면 體用이 같을 수 없고 하늘과 인군은 서로 어긋나 天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진나라, 수나라의 폭군은 스스로 하늘을 단절했다.¹⁷⁾

고 하여, ‘自絶于天’은 하늘의 재앙을 스스로 끌어들이었다는 것이다.

이치로 추리한다면 하늘이 象을 드리운 까닭은 인애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인군이 이에 응하는 까닭은 위협하고 조롱하며, 나태하고 덕을 포기하여 하늘이 모욕하지 아니하나 모욕한 것이며 하늘이 버리지 아니하나 버린 것이니, 하늘이 인군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곧 인군이 스스로 재앙을 부른 것이다. 그가 쇠망할 때 하늘을 보고 말한다. “하늘은 나를 구휼하지 아니하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까?” 한다.

그러한 뒤에 지혜가 中才의 인군은 하늘의 인애를 인식하여 잘 天心을 받을 줄 안다. 昏暗한 인군은 하늘의 인애에 어두워서 스스로 천명을 떨어트린다.

敬惟親之天 何忍降威於祗承欽若之君乎

16) 同上 ; 人君之德 與天同其體, 人君之政, 與天同其用, 則天則君也, 君則天也, 上下一致, 顯微無間……君之德虧 而與天不得同其體, 君之政缺 而與天不得同其用. 則天自天, 君自君也, 以難謀之天

17) 同上 ; 秦隋之君, 自絶于天

아아!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하늘과 단절하는 것을 처벌할까? 인군이 진실로 먼저 나에게 있는 하늘을 닮아 저 하늘에 있는 것에 응하면 저에 있는 하늘이 자연 나의 하늘과 감동하며, 나에게 있는 하늘이 저에게 있는 하늘과 잘 감응하지 못하여 저에게 있는 하늘로 하여금 도리어 나에게 있는 하늘을 감동하고자 하면, 하늘은 감동할 수 없고 재앙을 그만두게 할 수가 없다. 뒷날 인군이天心으로 인애할까? 천심으로 인애하지 아니할까? 부흥과 쇠퇴의 기미는 차갑도록 무섭다.¹⁸⁾

저 하늘, 나의 하늘의 하늘이란 天理를 말하고, 天의 理와 나의 理가 감동되어야 인군이 하늘을 대신하는 아들이라고 하겠으나, 天理와 나의 理(我之理)가 일치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면 재앙이 발생한다.天心은 인애다. 인군이 그 인애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임해야天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군의 마음가짐을 소상하게 말하는 가운데 德政 곧 王道政治論을 전개하였다. 왕도정치는 인군이 하늘의 仁愛하는 마음으로써 내 마음으로 삼고, 백성을 인애하는 것이다.

(2) 의장(義將) 활동

壬亂에서 任啓英에게 義將을 의탁하나 丁酉亂에서 또 義將에 추대되었다.

壬辰倭亂 때 선생은 66세((1592)의 老軀로 의병을 모집하여 700여 인에 이르렀다.

오랜 평화를 짓밟고 倭兵은 서울로 15일도 안되어 직입하고 침략했다.

18) 同上 ; 以理推之, 則天之所以垂象者 仁愛之心也, 而君之所以應之者, 威侮若是也, 怠棄若是也, 天不可辱而辱之, 天不可棄而棄之, 則非天之不愛君也, 乃君之自作孽也, 乃其衰亡而指天曰, 天不我恤, 豈有此理哉 然後知中才之君, 識天之仁愛而 克享天心. 昏暗之君, 昧天之仁愛而 自墮天命也, 嗚呼, 罔非天胤 而其耳自絕于天乎. 人君苟能先修在我之天, 以應在彼之天, 則在彼之天, 自然感我之天矣. 在我之天 不能應在彼之天, 而欲使在彼之天, 反欲感我之天, 則天不可感 而災不可弭矣. 後之爲人君者, 將使天心仁愛乎, 將使天心不仁愛乎, 興復衰亡之機 凜乎其可懼

1) 壬辰檄文

竹川선생은 전 진보현감 任啓英과 능주현령 金益福과 또 鄭佶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고 7월에 여러 고을에 격문을 보내었다.

전 현감 朴光前, 任啓英 등과 능성현령 金益福은 삼가 여러 고을 벗들에게 두 번 질하며 봉서(奉書)합니다.

아아! 국가의 믿는 바이며 침략할 거점이 없는 곳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이더니 경상도와 충청도는 이미 무너져 왜적의 소굴이 되었고, 다만 이 호남만 겨우 한 구석이 온전하다. 군량의 수송과 정병의 징발을 모두 호남에 의지하게 되니 바로 흥기할 기회가 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의 일이 위태로우니 참으로 통곡할 것입니다. 이에 義士가 분발할 때입니다. 생각컨대, 왜적이 서울에 침입하여 장정들을 도륙하니 슬프다. 우리 백성이 몸둘 곳이 어디며, 집을 삼을 곳이 어디나? 영남이 이미 그렇게 된 자취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 ……; 어찌 국사에 죽지 않고 하물며 만일 요새에 근거하여 왜적의 기세를 꺾고 막는다면 죽을 중에서도 생을 구제함이 이 기회이니, 설치(雪恥)하여 나라를 회복함도 이 때이다. 우리 도내에 반드시 살아남은 장정과 흩어진 병졸이 있을 터이니 아는 선비는 서로 소집과 권장하여 힘을 합하여 떨쳐 일어나 스스로 일군을 형성하고 왜적의 동향을 살펴 요충지를 고수한다면 위로 王의 군사의 성원이 될 수 있고, 아래로는 한 지경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 ……; 보성관문으로 모이되 실기하여 후회한들 어찌 미치겠는가. 군주가 옥 당함을 구제하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모두 중시 생각하고 창의하여 여러분은 도모하라.19)

고 호소하였다. 죽천은 국가가 위급하고 군주가 옥보는데 君國을 雪恥하여 인간의 도리를 다하자고 호소했다.

19) 『竹川集』卷4, 「壬辰舉義時檄文」; 前縣監朴光前·任啓英等 與綾城縣令金益福 謹再拜奉書于別邑諸友, 嗚呼, 國家所持而無虞者 三下道 而慶尙忠清 既已潰裂 爲賊窟穴, 獨此湖南 僅全一隅, 軍糧歸輸, 精卒徵發, 皆倚一道 興復之機, 實在于此 ……; 國家之事岌岌乎, 誠可痛哭, 此義士奮發之秋也, 下以思之, 則賊至城下, 屠戮丁壯, 哀我生民 措躬何地, 室家置之何所, 嶺南已然之跡, 耳所聞也, 目所見也. ……; 何不死於國事, 况萬一控扼要害, 使賊勢沮遏, 則死中救生, 此其機也, 雪恥復國, 此其時也. 凡我道內 必有遺漏之丁, 散亡之卒, 如使有識之士, 相與召募勸勵, 協力奮起, ……; 自成一軍, 視賊所向, 固守要衝, 則上可以爲王師之聲援, 下可以保一境之生靈 寶城官門 一失事機, 後悔何及, 主辱不救, 何以爲人, 咸思終始而倡義, 僉君是圖

2) 王世子(1575-1593, 18세의 光海君)에게 상서

선생 68세(癸巳, 神宗 21년, 1593)에 왜적은 幸州에서 패배하고 경상도 해안으로 철수하나 격전 끝에 晋州가 함락하지만 宣祖는 환도하였다. 이에 앞서 竹川先生은 선조가 서울을 떠날 때 호종하지 못하고 서쪽을 보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왕이 다시 돌아오에 상소로 죄를 청했지만 왕은 위로하고 翊衛를 제수 하였다. 竹川이 「王世子에게 아뢴 글」에서

‘오늘의 민생이 저렇게 보금자리를 잃고 살려는 생각이 없다.’고 통분하며, ‘아아! 개알을 于城에 버리니 사람의 요량이 아닙니다. 백성의 기쁨과 괴를 탈취하니 어찌 보장하는 길이겠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수합함이 바로 오늘의 급무입니다. 가령 저 물고기는 물에 의지하고 나무는 흙에 의지하며, 사람은 식량에 의지하니 그 이치는 마찬가지로입니다. 물고기에 물이 없으면 썩어문드러지고, 나무는 흙이 없다면 말라 죽으며,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는 것은 밭에서 나는데, 그 밭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식량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난해 흉년이 들어 백곡의 수확이 전에 비하여 반감되었는데, 부역하는 무거운 전에 비하면 열에 배이니 한 해를 마치지도 못해서 집안이 이미 궁핍하였습니다. …… , 만약에 피차가 한 해 혹은 연달아 하게 하면 고단한 백성이 어찌 먹으며, 주둔하는 병사는 어찌해 식량을 충당할 것입니까? 백성은 어찌하여 백성이 되고 나라는 어찌하여 나라가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 밭을 갈고 썩을 파서 비록 스스로 생육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농사하는 시기를 어기지 않는 것이 실로 王道의 시작입니다.²⁰⁾

라고 하여 王道를 설명, 주장하고 농사를 권장하여 民食과 軍糧에 충당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오늘의 왕도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王道는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요, 민심의 수습은 세금의 감면과 식량의 보충이다.

20) 『竹川集』 卷2, 「上王世子書」(1593) ; 今日之民生, 如彼棲苴 絕無生意……嗚呼, 卵棄于城 非用人之量, 浚民膏血, 豈保障之道, 收合民心, 此正今日之急務也, 若夫魚之依水, 木之依土, 人之依食, 其理一也. 魚無水則餒, 木無土則枯, 人無食則死, 食出於田, 不能治其田, 則食安從出乎. 上年凶歉, 百穀之登, 比前減半, 徭役之重, 比前倍什, 未及卒歲 室已懸磬矣……若使彼此終歲連年, 則子遺之民, 何以爲食, 屯戍之卒, 何以爲糧, 民何以爲民, 而國何以爲國乎. 臣意以爲耕田鑿井 雖是自育之事, 不違農時, 此實王道之始

3) 屯田賦

竹川の 賦가 여러 편이나 그 중 「屯田賦」는 나라를 사랑하는 성심과 관계가 있었다.

나는 오직 나라방어의 큰길은 병사 양성의 타당함이라고 한다. 병력은 나라 경계가 유족하고 무비(武備)는 본래 백성과 밀접하다. 뱃길과 수레 길의 많은 비용은 참으로 군수를 지탱하기 어려워 오직 밭 같고 전쟁하는 두 가지의 얻음은 屯田하는 원대한 계략을 아름답게 하며 聖人の 침략에 대한 방어와 병기를 제조하여 나라를 지킴을 생각하여 밭 같아서 조세를 계획하고 전쟁을 농사에 의지하게 한다.²¹⁾

역시 壬辰, 丁酉의 왜란을 겪고 군비의 중대성을 자각한 작품이 「屯田賦」라고 하겠다. 이 모두 선생의 뜨거운 憂國 義烈的 소치라 생각된다.

신라가 '포석정'에서 견훤에게 패한 것을 역사적 경계로 삼아 「포석정부」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계림의 구름 같은 수심은 왕기를 다했고 천년의 玉笛 막혀 소리가 없네,
臥石亭가 봄 풀은 푸르고, 눈에 보이고 일어난 흥은 정을 다 못하네.²²⁾

6. 맺음말

竹川선생의 諡號를 청하는 疏 글에서

“대개 朴光前의 道學節義는 신등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다.”라 하였고, “朴光前의 학은 李滉의 嫡傳이다.(請諡疏)”라고 하였으며, 壬辰·丁酉倭

21) 『竹川集』 卷1, 「屯田賦」; 余惟守禦之大道, 曰養兵之得宜. 兵力裕於國計. 武備固於民麗然. 漕輓之多費, 實軍需之難支. 惟耕戰之兩得, 美屯田之遠略. 念聖人之禦侮, 制兵車而守國, 因耕田而賦乘, 以軍旅而寓農

22) 『竹川集』 卷1, 「鮑石亭賦」; 鷄林雲愁王氣歇兮, 玉笛千年澁不聲兮, 臥石亭迎春草青兮, 寓日興懷不盡情兮.

亂에 두 번 義兵將이 되어 君國에 사명을 다하였으며, 또 문인에 牛山 安邦俊과 文緯世와 장자 朴根孝 등 義節士가 나왔으니 모두 선생의 遺德이다. 竹川은 일찍이 말하였다.

사람의 도리를 살피건대, 그 자취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다. 자취로 살핀다면 일이 비록 不忠에 옮겼다고 하나, 마음으로써 살핀다면 어찌 不忠한 가운데, 至忠이 존재함을 알랴!

그 천하의 대공(大功)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천하의 인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천하의 인심을 잃고 천하의 큰공을 이룩함은 아직 있지 아니했다.²³⁾

고 하여 천하의 인심을 얻는 것이 인간의 대도요, 천하의 大功이다. 형적보다도 근본은 마음에 있다고 강조했다.

천하를 다스리는 대도는 인심을 얻는데 있다고 하지만, 英雄豪傑들에서 비유한 것이 많은 것은 모두가 왜놈의 나라침략에 대하여 민심을 흥기하여 영웅적 활동을 기대하는 經世的 實學에서 竹川의 진면목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의 道學과 節義가 모두 민심의 우국적 자각을 흥기하는 실천이 그 평생의 偉業이었다.

참고문헌

李 滉, 『退溪文集』

文緯世, 『楓庵錄』

朴光前, 『竹川集』

투고일 2002. 12.27 심사시작일 2003. 1.6 심사완료일 2003. 1.18

23) 『竹川集』 卷4, 「項伯翼蔽沛公論」; 觀人之道, 不于其迹而于其心, 以迹而觀之, 則事雖涉於不忠, 而以心而觀之, 則安知不忠之中, 有至忠者存乎. 夫欲成天下之大功者, 必不失天下之人心, 失天下之人心, 而成天下之大功者, 未之有也

Abstract

The personality and Chuja's confucian of Juk-Cheon
Park Kwang-Jeon

Yu, Myung-jong

Juk-Cheon Park Kwang-Jeon(竹川 朴光前) was dutiful to his parent since childhood and taking a series view of practical DoHak(道學) based on SoHak(小學). He became a disciple of Lee Hwang(李滉) at 41 years of his age and then got the book “Chuja’s Condensed Edition(朱子書節要)”, and searched answers by asking of letter

ToeGye(退溪) guarded against bias in studying method and he said that knowledge(知) and conduct(行) is advance side by side. Juk-Cheon accepted ToeGye(退溪)’s theory. Juk-Cheon succeeded in the ‘Jin Sa examination(進士試)’, then became an officer, Chang-bong in Kyeng Gee Jeon(慶基殿). Since then he became Ham Yel Hyun-Gam(咸悅縣監), Heo Duk Hyen-Gam(懷德縣監). He had a mild nature. But he was very strict and obvious in discrimination of right and wrong. He made every endeavor together with An Bang Joon(안방준), Moon Wyi Se(문위세), and Geun Hyo(근효), his son, to overcome Janapanese military invaded by becoming a member of loyal troop.

Juk-Cheon established a foundation of learning by “Chuja’s Condensed Edition(朱子書節要)”. And he demonstrated a truth of Jeong Joo(程朱) with making efforts in Wi gie hak(爲己學) and compromise between Yie gi sun hoo(理氣先後) and Sa dan chil jeong

theory(四端七情). He had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孝悌), good behavior(謹慎), and a harmonious disposition. He also had self-understanding in learning as a scolor of Chuja's confucian.

He is understanding that high and low is the one because reason of Chun Li(天理) and In Sim(人心) has no gap and human has a nature law of Gun Soon(健順) and O Sang(五常). That's to say, he adhere strictly to standpoint of Chun Juk Li(天卽理), in accordance with that heaven and a saint is the one. Also a view of Sim Hak(心學), Juk-Cheon inherited Sim Hak(心學) from Toe Gye. In Chuja's confucian, training one's mind has two pillars. That are Goong Li(窮理) and Geo Gyung(居敬). Goong Li(窮理) or Juk Mool Goong Gyuk(卽物窮格), In here, trains one's body and mind by reflecting Li(理) to frame of mind and leading thought of rational. This is an objective method for training. Internal mind studying is in Joo Gyung(主敬). Training study of unity of interior and exterior is not accomplished until both external training and internal training are growth. Ji Gyung(持敬) starts from study of Sin Dok(慎獨). It exists that throw a selfish desire away and Ja Soo(自守) the Jeong Li(正理). Ji Gyung(持敬) and Jeong Li(正理) is must be the one by mutually supplementing and melting. Self precaution, Sin Dok(慎獨), is foundation toward the Ji Gyung(持敬). Through the study of Joo Gyung(主敬), So to speak, training which improving ethical principle that is inherent one's mind is progressing.

Juk-Cheon's political thought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mental attitude, and the other is plan for the protect of a country. Juk-Cheon consider moralistic sovereign as the man who give humane affection to a person, and he can change a diaster to a

lucky omen. When Che Yong(體用) is together with moral nature of benevolent sovereign and heaven, that is to say, heaven is sovereign practically and vice versa. Thus he evolved the theory of politics by moralistic sovereign by saying benevolent sovereign's mental attitude detailedly. Politics by moralistic sovereign is that benevolent sovereign has humane affection mind and thing which humane affecting.

Although Juk-Cheon was elected as head of loyal troop, but can't participate in battle directly. Because that is from too many years of age and illness. But he collects loyal troops by sending manifesto, through emphasizes importance of military preparations. And he makes efforts in order to satisfying with human's reason by removing monarchy's dishonor.

Through the following, Juk-Cheon's personality is a paragon in moral philosophy(道學) and righteousness(義理) forever.

Keyword

Juk-Cheon Park Kwang-Jeon(竹川 朴光前), ToeGye(退溪), Chuja's Condensed Edition(朱子書節要), Yie gi sun hoo(理氣先後), Sa dan chil jeong theory(四端七情), Chun Juk Li(天卽理), Sim Hak(心學), Goong Li(窮理), Geo Gyung(居敬). Joo Gyung(主敬), Gyung(持敬) starts from study of Sin Dok(慎獨), It exists that throw a selfish desire away and Ja Soo(自守) the Jeong Li(正理), Ji Gyung(持敬), Jeong Li(正理), Sin Dok(慎獨)

竹川 朴光前의 人品과 性理思想

劉 明 鍾

竹川 朴光前은 어려서부터 효행이 두터웠으며, 공부에 있어서 『小學』 위주의 실천도학을 중시 하였다. 그는 41세에 退溪의 門에 執贄하여 퇴계로부터 『朱子書節要』를 선사받아서, 문목으로 질의하여 답을 구하였다. 퇴계는 학문 방법에 있어서 편중됨을 경계하였고, 知·行이 竝進하고 互進한다고 하였는데 죽천은 이를 받아들였다. 竹川은 43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慶基殿 參奉으로 제수 되었다. 그 후 王子師傅, 監察, 咸悅縣監, 회덕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성품이 유화하지만 시비의 판단에서는 매우 엄정하고 분명하였다. 그는 문인 안방준, 문위세와 아들 근효와 함께 壬辰, 丁酉再亂 극복에 의군으로 활동해 국난극복에 성심을 다하였다.

竹川은 退溪에게서 받은 『朱子書節要』를 학문의 기본으로 삼아, 위기학(爲己學)에 노력하여 程朱의 진리를 밝히며 理氣先後와 四端七情說을 절충하였다. 그는 성리학자로서 孝悌, 謹慎하며 和氣한 기상과 학문에自得함이 있었다.

그는 健順, 五常의 天理가 인간에게 함께 구비되어 있고, 天理와 人心의 理는 틈이 없이 上下가 一體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天和 聖人是 일치하는 것’으로 ‘하늘이 곧 理(天卽理)’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심학에 있어서 竹川은 退溪의 心學을 계승하였는데, 退溪는 『心經』에서 心學을 주목하고 居敬으로 마음 수양의 공부로 통일하였다.

성리학에서 인간수양은 窮理하는 天理와 居敬하는 心의 두 기둥이 있다. 여기에서 ‘卽物窮格’ 즉 ‘窮理’는 객관적인 理를 내 마음의 사고방식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유도하여 자기의 심신을 格律하게 한다. 이것

은 객관적인 수양 방법이고 내면적인 마음의 공부는 主敬에 있다. ‘窮理’라는 외적 수양과 ‘主敬’이라는 내적 수양공부가 서로 성숙해서 비로소 내외일치의 수양공부가 성취된다. 持敬은 慎獨공부에서 출발한다. 私慾을 버리고 正理를 自守하는데 있다. 持敬과 正理는 서로 보충하고 서로 녹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 홀로 조심하는 慎獨이 持敬으로 나아가는 기초이다. 즉 主敬공부를 통해서 자기에게 내재해 있는 선천적인 도덕원리를 발전시키는 수양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죽천의 정치사상은 군주로서의 마음가짐과 국가 방어에 관한 방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죽천은 인군을 하늘을 대신하여 인애하는 마음을 내리는 자로서 災殃도 祥瑞로 바꿀 수 있는 존재이다. 즉 인군의 덕성이 하늘과 같이 채용을 함께 할 때 君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君으로 顯微에 틈이 없어진다. 이렇게 인군의 마음가짐을 소상하게 말하는 가운데 덕정 곧 왕도정치론을 전개하였다. 왕도정치는 인군이 하늘의 인애하는 마음으로써 내 마음으로 삼고, 백성을 인애하는 것이다.

죽천은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에서 의장으로 추대되었으나, 높은 연령과 병환으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격문을 보내어 의병을 모집하였고, 왕세자에게 상서를 올려 민심을 수습하는데 힘썼으며, 「屯田賦」를 지어 군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君國의 수치를 씻어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죽천의 人品은 道學과 義理의 영원한 사표이다.

주제어 竹川 朴光前, 退溪, 朱子書節要, 理氣先後, 四端七情說, 天即理, 心經, 心學, 窮理, 主敬, 持敬, 慎獨, 壬辰倭亂, 丁酉再亂